

01 교회소식

전 세계 만민을 깨우는 권능의 사역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가 성령의 강권적 역사 가운데 올해 77회 출장으로 국내외 선교를 아름답게 이뤘다.

02 생명의 말씀_ 지혜 시리즈 2

성결의 지혜

누구든지 참 믿음을 소유해 마음에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를 받으면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감사의 향을 올려 드리는 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서 맞는 추수감사절 풍경을 소개한다.

04 간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받은 이정한 집사와 죽어가던 동생이 시공초월한 권능으로 소생했다는 이스라엘 유리 칼위코프 목사 간증.

만민뉴스

제608호 2013년 11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국내외 만민지교회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손수건으로 교역자와 성도들 깨워



우리 교회는 국내외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성령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뤄가고 있다.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가지고 국내외의 교역자와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는 손수건 기도를 통해 수많은 불치, 난치병 등이 치료되고 문제 해결을 받는 등의 성령의 역사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있다.

우리 교회는 개척 후 지금까지 31년간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 또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미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해외 14개국에서 대형 연합성회를 인도했고, 다국어 신앙서적과 신문, 방송 선교를 통해 전 세계에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전해 왔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국내외의 1만여 자협력교회와 함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해외 지교회 중 하나인 캐나다 알베르타주 캘거리에 위치한 캘거리만민교회가 11월 10일,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창립 6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 목사는 '선한 자'(눅 6:27-3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이어 찬만

한 찬양과 함께 성령찬미기도회를 인도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원수까지 선대할 수 있는 선의 마음을 이룰 것을 다짐하며 눈물로 감사와 사랑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렸다.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는 국내외 지교회와 함께 활발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다. 올해만도 총 77회에 달하는 창립 기념예배와 손수건 집회, 성령찬미기도회를 인도했으며, 연말까지 9회의 집회가 추가로 예정돼 있다. 이같은 이 목사의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졌으며, 온 영의 흐름 속에 지교회들이 하나 돼 결속을 다지게 됐다.

구미만민교회 최제수 목사는 "이희선 총지

도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국내 지교회들이 본 교회와 같은 영의 흐름을 타고, 성도들이 더욱 영의 마음을 사모하게 됐다."라고 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몸에서 가져온 손수건에서 권능이 나타난 것처럼(행 19:11~12)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사역하며 갖가지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9월에 있었던 일본 나고야·야마가타 만민교회 창립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에서는 이희선 목사의 손수건 기도로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는 등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한편, 올해 4월에 열린 프랑스·벨기에·라트비아·에스토니아·불가리아 유럽 5개국 선교

를 통해서도 큰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 에노만민교회 노현숙 선교사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영적인 믿음을 갖고,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됐다. 또 교회의 기반이 든든히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으며, 주변에 성결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증폭돼 현지 사역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민의 사역은 오늘날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수많은 영혼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준비된 영적 장수들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전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섭리가 더욱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17)

성결의 지혜

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잠 16:6).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여 해 주는 권면도 감사하게 받으며 더욱 하나 되어 열매 내게 하옵소서.”

이처럼 마음에 악이 없으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선한 기도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연 중에 배어 나오지요.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빠르거나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기도를 기뻐하시며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만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나 말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은 선한 의도로 했는데 도리어 난처한 입장에 놓이거나 비방을 당한다면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 입장을 변명하면 할수록 오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변론해 억울함은 밝혀낸다 해도 과정에서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니 결국 서로 간에 감정만 쌓일 뿐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변론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화평이 깨져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선한 사람은 변론하지 않고 잠잠히 상대를 품지요.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상대의 마음이 녹아져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힘들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여 변명하려고 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 뜻을 깨닫고자 하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이 부족했는지, 왜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깨닫고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요. 혹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배워도 마음에 악

이 있으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억울한 마음에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버리고 성결될 때라야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3. 선이 없는 지혜는 헛된 지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용모가 출중하고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악해 자신의 지혜를 악한 데 사용했기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압살롬은 이복 형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을 범하자 기회를 엿보아 부하들을 시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반역을 도모하지요. 친위부대를 양성하고 백성을 포섭해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해 민심을 얻습니다.

또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끌어들이지요.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압살롬의 반역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어둡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단번에 다윗을 제압할 작전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다윗에게 유리한 작전을 제안한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압살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력을 흐리시니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성결이 없는 지혜는 헛되고,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분별이 안 되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마음에 성결을 이뤄 선한 지혜를 얻으면 범사에 마땅히 말할 바와 행할 바를 분별할 수 있지요. 또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고 응답과 축복의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성결의 지혜로써 더욱 행복한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성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의 지혜

마음에 선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지적하며 무안을 줍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의 악한 의도를 눈치 채면 비꼬는 말로 되갚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선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선이 있는 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받습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선한 지혜를 알려 줘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받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기도를 합니다. 악이 없는 만큼 선한 기도를 할 수 있지요. 한 예로 어느 구역장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역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부흥이 더딘 것 같고, 구역원들이 불평을 하지만 오히려 선한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저 같은 사람에게 귀한 구역장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역 식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눈물이 있사오니 그 안에서 열매낼 수 있나이다. 때론 구역 식구들이 저를 사랑

1.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지름길

오늘날 학교 교육이 지식 주입에 치우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 주는 교육을 제시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는 백지와 같이 기억 장치에 아무런 지식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데 이것이 지식이지요. 이렇게 쌓은 지식을 적절히 잘 배합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시비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로 오시는 길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17,652,5618,5619, 5626,5630,5712,5714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 곧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대대로 지키게 하셨다(출 23:14~16). 절기를 통해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유념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다.

기독교 3대 절기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들 수 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살펴본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年終, 그해 마지막)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했다. 수장절은 원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다.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 후 추수감사제를 드림으로 한 해의 농사를 마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풍성한 수확물로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40년 동안 광야생활 했던 고난의 때를 잊지 않고 기념하게 하셨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면서 매년 칠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영원한 규례를 선포하셨는데 바로 초막절(레 23:42~43)이다. 초막절은 올리브, 포도 등을 추수해 저장한 후 지키는 감사 절기를 말한다(레 23:34~41). 첫날에는 안식하며 성회를 열고, 칠일 동안 즐거워하며 초막에서 거한다. 출애굽 때에 초막에 거한 것을 대대로 알게 하시며 팔 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며 성회를 열어 큰 구원의 날로 지킨다.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메시아가 초막절에 오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하셨다.

더욱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어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유래됐다

영국의 신앙적 대각성 운동이 전 유럽에 출렁일 때에 청교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길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처음 수확한 소산들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며 예배한 것이 그 유래가 됐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땅을 일구며 살아온 청교도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영적 의미를 깨달아 추수감사제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심에 감사해 마음과 뜻을 다해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시 56:12~13). 더불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믿음과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고후 9:7).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제를 드려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기를 바란다.

◆ 잊을 수 없는 40년 광야생활, 이스라엘의 초막절



이스라엘 강하나 선교사

종종 '지역하락'의 표어를 내걸고 있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통해 40년 광야생활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가족이 초막에서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기도 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왼손에는 시트론,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 시내버들 가지를 한꺼번에 들고 매일 일정하게 흔들면서 축복문을 낭독하기도 한다(레 23:40). 네 가지 식물 중 가장 중요한 시트론(etrog)을 왼손으로 잡는 이유는 인체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에 최대한 밀착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초막절은 가을, 보통 우기가 시작할 즈음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충분한 비

가 내리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방으로 세 번씩 흔든 후 하늘과 땅을 향해 세 번씩 흔든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나 계시므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 다시 나라를 잃은 채 약 2천년간 방황해야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도 구세주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나라를 찾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며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고 계신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1.17~11.23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풍성한 신령(추수감사) ▪ 공간과 차원 4-7 ▪ 사랑장 2-6 ▪ 선 1-2 ▪ 십계명 3-7 ▪ 성경적 결혼관 1-2 ▪ 지옥 10-14 ▪ 우리삶의 등불 3 	GCN TV 설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선교 보고(이수진 목사) ▪ 기도(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3(이희선 목사) ▪ 생명수 6(신동초 목사) ▪ 탕자의 비유 3(정구영 목사) ▪ 역사사지(교경아 교육전도사) ▪ 말씀으로 언제나 내 안에(신수일 집사) 	예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 ▪ 찬양드려요 4-5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4-5 ▪ 향기 4-5 ▪ 우리하나 2-4 ▪ 플로리스트 5 ▪ English 2-3 ▪ 아름다운 예배 2-3 ▪ GCN방송 24시 	해외성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연합대성회 3 ▪ 이스라엘 연합성회 4주년 기념성회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	---	---	---	--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정환 집사 (춘천만민교회)

2003년 4월 대구 계명대학교 재학 시절, 학교에서 주관한 ‘4.19 기념 하프마라톤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친구들과 마라톤을 완주했지요. 그런데 너무 힘에 부친 탓인지 다음날 아침, 이상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병원 진단 결과, 와사풍(안면마비)으로 의사 선생님은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에도 얼굴에 경련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마침 포항만민교회에 다니시던 어머니 신사랑 권사님은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가 열리니 함께 참석하자고 하셨습니다.

성회에 참석한 저는 감사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선천성 귀머거리가 듣고 말하며, 실명된 눈이 보이고 사람들이 안경을 벗는 것을 보았지요.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사람들이 목발과 지팡이를 버리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적이란 게 있구나.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주어지며 열심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시간 시간 말씀에 은혜를 받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우쳐지면서 통회자복을 하게 됐지요. 그 후 감사님 기도로 와사풍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후 대구만민교회에 출석했지만 학교 생활을 핑계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갔지요.

2007년 2월, 환경학 석사학위 취득 후 취업 준비를 위해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대형 이관규 장로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했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지요. 당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 증거



하시는 ‘천국’ 설교를 통해 믿음과 천국 소망이 생기자 각종 예배는 물론,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해 7월, 이관규 장로님이 강원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돼 온 가족이 춘천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춘천만민교회에서 여러 사명을 맡아 봉사했지요.

2008년에는 이관규 장로님의 권유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이관규 장로님과 함께 50여 건의 프로젝트 수행, 60여 건의 학술

논문 발표, 7건의 국내외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등 성과를 올렸지요.

또한 작년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 하던 중, 춘천만민교회 새성전 이전과 창립 12주년 기념행사에 전담하고자 논문 심사를 한 학기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류 심사, 공개 발표 등 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심사 절차를 행통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2013년 2월, 조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연구소 연구교수로 임명되는 축복까지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민간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환경 컨설팅을 통해 예상 외의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내 이영옥 집사도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저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영육 간에 축복을 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동생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유리 칼워코프 목사 (이스라엘 하이파 생명수교회 담임)



러시아에 살고 있는 남동생 파벨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5년 전부터는 심장질환과 심근경색이 발병했지요. 급기야 올해 8월경에는 심장관 협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상된 갈비뼈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갈비뼈를 철심으로 고정하는 재수술을 받았지요. 하지만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계속 진물이 났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경, 심장에 계속 문제가 생기자 동생은 다시 입원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는 심각했지요. 심장은 더 커지고 심장박동은 약해져 피를 뿜어 주지 못함으로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이 어려워졌고,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 호흡기를 사용해야만 했지요. 동생은 중환자실 침대에 반쯤 누워 물핀을 맞으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10월 26일, 이날은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새생명을 주신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하이파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이수진 목사님을 감사로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4주년 기념성회가 열렸습니다. 설교 후 감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었지요. 저는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받았습니다. 감사님은 이재록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을 제 가슴에 대고 기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시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동생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기도 받은 동생은 모든 신체 리듬이 좋아져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났으며,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 기적 같은 사실에 의사들은 매우 놀라워했지요. 며칠 뒤 동생은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권능의 역사로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동생 파벨과 그의 가족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91~4, 010-96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장항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천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율포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0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